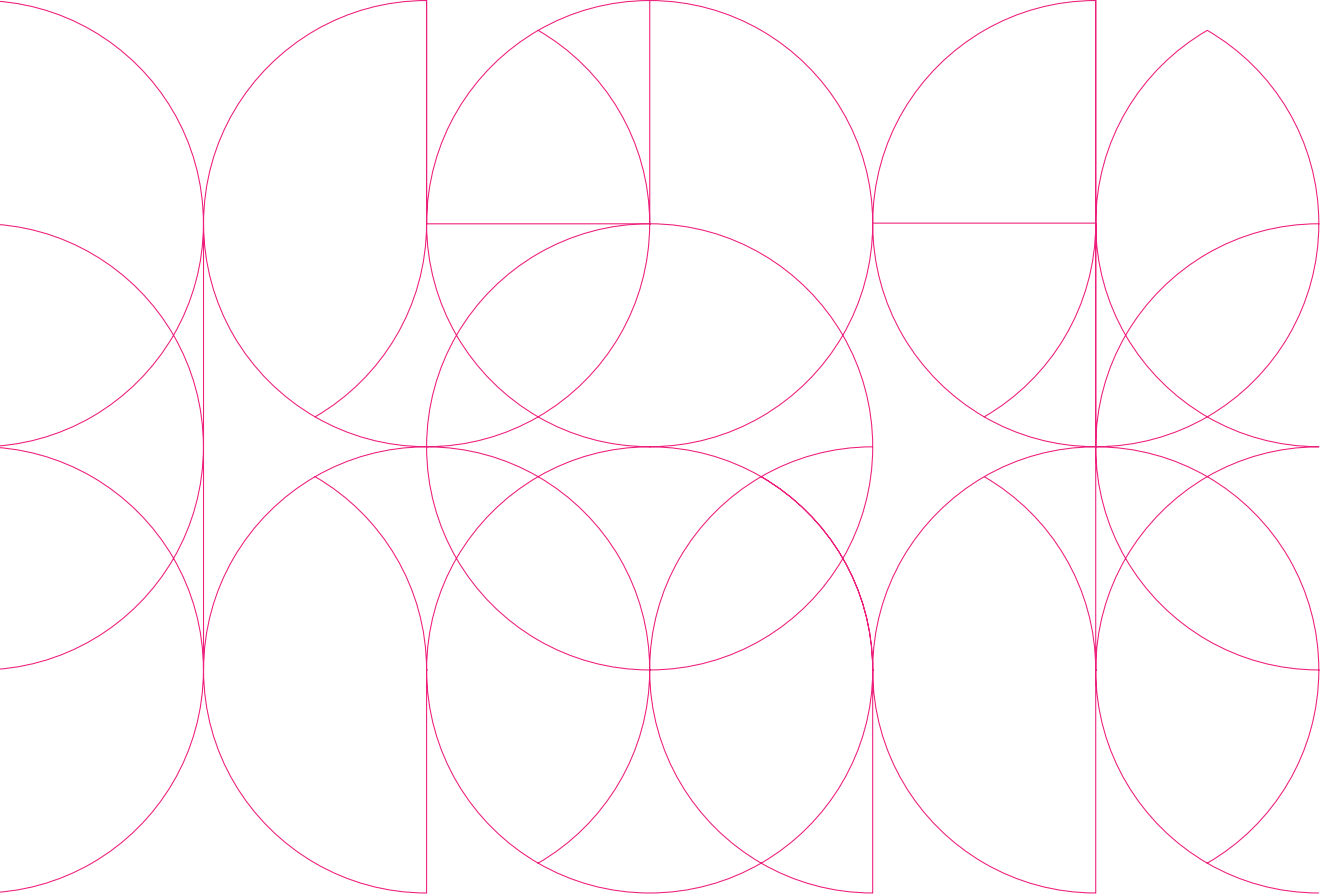


KBS S.O. 829th

2026. 8. 27. THU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주세요.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 주세요.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 A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T

 02-6099-7400
- F

 02-6099-7416
- H

 www.kbssymphony.org
- f

 facebook.com/kbssymphony
- plus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 (혹은 ‘kbssoforever’)
- ig

 kbssymphonyorchestra
- yt

 youtube.com/@KBS_Symphony_Orchestra

Program

라흐마니노프 S. Rachmaninoff	피아노 협주곡 제2번 c단조, 작품 18 Piano Concerto No.2 in c minor, Op.18	⌚ 36’
	I. Moderato 보통 빠르기로 II. Adagio sostenuto 느리고 깊이 있게 III. Allegro scherzando 빠르고 활기차게	
인터미션	Intermission	⌚ 15’
프로코피예프 S. Prokofiev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중 발췌 Excerpts from ‘Romeo and Juliet’ Suites	⌚ 45’
	I. The Montagues and Capulets 몬터규가와 캐플릿가 II. Juliet – The Little Girl 소녀 줄리엣 III. Masks 가면무도회 IV. Romeo and Juliet 로미오와 줄리엣 V. The Death of Tybalt 티볼트의 죽음 VI. Friar Laurence 로렌스 수도사 VII. Dance 춤 VIII. Dance of the Maids from the Antilles 백합을 든 소녀들의 춤 IX. Romeo at Juliet’s Grave 줄리엣 무덤 앞의 로미오 X. The Death of Juliet 줄리엣의 죽음	

- ✧ 총 소요시간: 100분
- ✧ 총 소요시간은 현장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 상기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휘 정명훈

정명훈은 영적인 지휘자 - <르 몽드>

Myung-Whun Chung, chef spirituel - Le Monde

마에스트로 정명훈은 2026년 KBS교향악단 제10대 음악감독으로 취임했다. 세계 주요 오페라 극장과 교향악 무대에서 활약해 온 그는 독일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 상임지휘자,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음악감독,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왔다. 2023년에는 이탈리아 라 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역대 최초의 명예지휘자로 임명되었으며, 2027년부터는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 247년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인 음악감독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1990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사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은 정명훈은 바스티유 오페라와 함께한 메시앙의 '투랑갈릴라 교향곡'을 시작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말러 교향곡 제2번,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등 40여 종의 음반을 주요 레이블을 통해 발매했다.

그는 2008년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임명되었으며, 2011년 평양을 방문하여 한반도의 평화 교류에 공헌했다. 2017년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일본, 캐나다의 정상들이 참석한 G7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연주회에서 라 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등 음악을 통한 인도주의적 대의 실현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클래식 음악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역대 최연소로 대한민국 최고 문화훈장인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고, 2011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등급의 문화예술공로훈장인 '코망되르'를, 2022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이탈리아 공화국 공로훈장 2등장을 수훈하였다. 또한 1991년 프랑스 극장 및 비평가 협회로부터 '올해의 음악가상'을, 2013년 베니스 라 페니체 극장 재단으로부터 '평생음악상'을 받았으며, 이탈리아 음악평론가협회에서 수여하는 '프랑코 아비아티상'을 1988년과 2015년에 각각 수상하였다.

Myung-Whun Chung
Conductor



피아노 김세현

김세현은 심연을 열고, 구원을 간구하며, 상처를 치유한다. - <르 몽드>
Saehyun Kim ouvre des abîmes, implore la rédemption, referme des plaies. - Le Monde

피아니스트 김세현은 2025년 롱-티보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7세의 나이로 1위 및 청중상, 평론가상, 파리특 별상을 모두 휩쓸며 국제 음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일찍이 그는 2023년 클리블랜드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와 더불어 청중상과 청소년 심사위원상을 수상하며 국제 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롱-티보 콩쿠르 우승 약 한 달 후, 유럽 전승 기념일 80주년 평화음악회에 초청되어 파리의 개신문에서 쇼팽을 연주하였다. 또한 프랑스의 혁명 기념일에 에펠탑 앞에서 솔로 및 듀오 연주를 선보였다.

그는 라 로크 당테롱 국제 피아노 페스티벌, 조던 홀, 루비통 재단 홀, 라 포르 주르네 도쿄, 코르토 홀, 에어바르 홀, 예술의전당, 부산콘서트홀 등에서 독주 및 협연을 선보였으며, KBS교향악단, 원코리아 오케스트라, 국립심 포니, 파리 공화국 근위대 오케스트라, 칸톤 심포니, 샌다이 필하모닉을 비롯한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마에스트로 정명훈, 장한나, Bastien Stil, Steven Byess, Ken Takaseki 등의 지휘로 협연한 바 있다.

25/26 시즌, 그는 라 로크 당테롱 페스티벌, 라디오 프랑스 페스티벌, 국제 쇼팽 페스티벌 (Duszniki-Zdrój), Musiq3 페스티벌 등으로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폴란드를 거치는 유럽 투어에 오르며, 라트비아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Andris Poga의 지휘로, 마르세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David Molard Soriano의 지휘로 협연한다. 다가오는 26/27 시즌에는 마에스트로 정명훈의 지휘로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및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정기연주회에서 협연할 예정이다. 현재 워너 클래식 (Warner Classics) 레이블의 전속 아티스트로서 솔로 데뷔 앨범 <쇼팽, 포레>가 발매되었다.

국내에서 신수정, 최영미를 사사한 후 도미하여, 월넛힐 예술고등학교와 뉴잉글랜드 음악원 예비학교를 백혜선 문하로 졸업하였다. 현재 하버드 대학교의 학사와 뉴잉글랜드 음악원의 석사, 복수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이며, 세계 적인 피아니스트 당 타이 손과 백혜선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 또한 리벤 국제 피아노 재단이 주최하는 페스티벌 에서 저명한 음악가들의 조언을 받고 있다.

Saehyun Kim
Piano

순수한 사랑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주제로 한 음악 작품 가운데서도 프로코피예프의 발레음악 <로미오와 줄리엣>은 두 집안의 갈등과 두 젊은이의 애타한 사랑을 탁월하게 표현해낸 걸작으로 손꼽힌다. 음악만으로도 등장인물의 감정이 느껴질 정도로 극적인 면이 강조된 프로코피예프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정명훈만큼 생생하게 표현해 낼 지휘자도 드물다. 그가 로열 콘서트헤바우와 함께 녹음한 <로미오와 줄리엣> 음반은 사랑과 갈등의 감정을 정밀하게 해석해 낸 명반으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KBS교향악단과 함께 선보일 <로미오와 줄리엣> 역시 많은 기대를 모은다. 이번 음악회에 출연하는 2025 롱-티보 콩쿠르 우승자 김세현은 음악뿐 아니라 문학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는 음악가로, 문학과 음악을 아우르는 깊은 감성을 담은 피아노 연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작곡가 라흐마니노프가 신경쇠약을 이겨내고 재기에 성공하도록 이끈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은 특히 멜랑콜리한 감성이 돋보이는 명곡으로 김세현의 섬세한 피아노 연주가 매우 기대 된다.

Pure
Love

라흐마니노프 / 피아노 협주곡 제2번 c단조, 작품 18 S. Rachmaninoff / Piano Concerto No.2 in c minor, Op.18

작곡 1900년~1901년
초연 1901년 11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
편성 독주 피아노,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4, 트럼펫 2, 트롬본 3, 튜바, 팀파니, 베이스드럼, 심벌즈, 현5부
연주시간 약 36분



영화음악으로 사용해도 구석구석이 기막히게 들어맞는 이 걸작 협주곡의 악상은 로맨틱하고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희로애락 사이 들어있는 복잡미묘한 감정들을 고스란히 드러내 고백하는 듯한 매력을 지닌다. 이 작품과 관련해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하자면 먼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변덕 심한 부잣집 딸로 변해 바이올리니스트와 피아니스트 사이를 오고 가며 사랑을 하는 줄거리의 영화 ‘랩소디’(1954)가 있다. 이 영화에는 사라사테의 치고이너바이젠, 멘델스존,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등 많은 클래식 걸작이 담겨 있지만 감독이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위해 선택한 음악은 바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의 피날레였다.

또한 이 곡은 이보다 먼저 만들어진 영화 ‘밀회’(1945)에서도 사용됐다. 매주 목요일 기차를 타고 외출하는 주부 로라는 기차역에서 우연히 알렉스라는 이름의 의사를 알게 되고, 각자의 가정 이 있음에도 둘은 사랑에 빠진다. 이 영화에서도 음악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감독은 섬세하게 변하는 영화의 분위기에 따라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중 여러 부분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음악이 또 다른 주인공처럼 활약하게 만들었다.

발표된 지 한 세기가 훨씬 넘어가지만 아직도 그 인기가 꺾일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은 작곡가가 오랜 슬럼프를 벗어나 재기의 날개를 활짝 편 작품으로도 알려져 있다. 라흐마니노프에게 큰 상처가 된 사건은 1897년 있었던 그의 <교향곡 제1번>의 실패였다. 초연을 맡은 지휘자 글라주노프의 실수가 결정적이었는데, 젊은 작곡가였던 자신이 무시받았다고 생각한 라흐마니노프의 정신적 타격은 매우 컸다. 이로부터 4년 후인 1901년 10월 모스크바에서 자신의 연주로 초연된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은 연주와 동시에 센세이션을 낳은 성공을 거두었다.

이 작품은 낭만적 감성, 매력적으로 울리는 러시아 풍의 우수, 환희에 가득찬 피날레의 인상 깊은 멜로디 등 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명작인데, 이 작품을 쓰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라흐마니노프의 작곡가적 감각이 완전히 멈춰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중요하다. 1900년 여름 베이스 샬리아핀과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무반주 합창곡 <치유자 판텔레이>를 완성했고, 오페라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의 듀엣 부분을 쓰기도 했다. 아울러 같은 해 12월 이미 협주곡의 2악장과 3악장을 완성시킨 라흐마니노프는 이듬해 봄에 절친인 니키타 모로조프에게 편지를 보내 1악장의 구성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요컨대 우리가 아는 이 유명한 제2번 협주곡은 단숨에 떠오른 영감의 일필휘지로 만들어지지 않은 절치부심의 노력 끝에 탄생한 소중한 작품이라고 하겠다.

I. Moderato

1악장은 크렘린의 종이 울리듯 인상 깊은 피아노의 화음으로 시작하며 오케스트라가 1주제를 소개한다. 애뜻한 감정이 드는 2주제는 피아노가 연주하며, 재현부 첫머리에서 나오는 행진곡풍의 리듬과 피아노의 힘찬 진행은 매우 인상적이다.

II. Adagio sostenuto

2악장 첫머리의 아름다운 주제는 여러 번 리메이크된 팝송 ‘올 바이 마이셀프’의 선율이기도 하다. 반응계와 빠른 셋잇단음표로 전개되며 흥분을 고조시킨 끝에 나오는 환상곡풍의 카덴차도 훌륭하다.

III. Allegro scherzando

러시아 무곡풍의 주제로 시작하는 3악장은 감동적인 2주제가 피아노, 오케스트라, 충주의 순서로 세 번 이어지는 과정이 하이라이트다. 특히 피아노는 주인공으로, 때로는 화음을 넣는 조력자의 위치에서 매력을 십분 발산한다.

프로코피예프

S. Prokofiev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중 발췌

Excerpts from ‘Romeo and Juliet’ Suites

작곡	1935년~1936년
초연	1938년 12월 30일, 체코슬로바키아 브르노
편성	피콜로, 플루트 2, 오보에 2,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 2,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2, 콘트라바순, 테너 색소폰, 호른 4, 트럼펫 2, 코넷, 트롬본 3, 튜바, 팀파니, 큰북, 작은북, 심벌즈, 트라이앵글, 글로켄슈필, 마라카스, 탬버린, 실로폰, 하프, 피아노, 첼레스타, 현5부
연주시간	약 45분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의 생전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지만, 많은 러시아인들에게 그는 ‘용감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남아있다. 음악계의 이단아였던 작곡가는 한평생 스스로의 예술에 한 치 부끄럼도 없는, 자부심 넘치는 음악가로 살아남고자 노력했다. 쉽지 않은 조건에서 오랜 외유를 끝내고 다시 소련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내적 원동력 역시 작품에 대한 자신감과 이를 바르게 판단해 줄 청중의 필요성에서 기인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낙후돼 있던 미국의 청중들과 실험주의적 모더니즘에만 박수를 보내던 프랑스의 공연계에서 염증을 느낀 프로코피예프의 발걸음이 향할 방향은 한 곳밖에 없었다.

건강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을 이상으로 삼던 프로코피예프는 무엇보다 소련 인민에게 어필하고 싶었다. 이와 동시에 당과 독재자 스탈린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작곡가가 찾으려 애쓴 소재는 보편적이며 낭만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러브스토리였다.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트리스탄과 이졸데」 등을 놓고 고민하던 프로코피예프가 고른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것이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작가의 작품 중 예술성과 함께 강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휴머니즘이 존재하는 걸작으로 작곡가는 젊은 생명의 죽음이라는 요소와 여기에 나오는 운명의 비극성에 강하게 끌렸다. 셰익스피어와 그리스 연극의 전문가들에게 디테일한 자문을 얻어 작업에 돌입한 프로코피예프가 작품의 완성을 본 것은 1935년 여름이었다. 초연은 체코 브르노에서 1938년 12월 이루어졌는데, 당시에는 결말을 해피엔딩으로 바꾸어 남녀 주인공이 모두 살아남는 결말로 내용으로 연주됐다. 레닌그라드 키로프 극장에서는 1940년 1월 처음 무대에 올려졌고, 놀라운 성과를 거둔 작품은 다시 1946년 안무와 음악의 개정이 이루어져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공연되었다.

같은 소재로 된 수많은 오페라와 관현악곡 작품들을 제치고 가장 높은 인기를 누리는 프로코피예프 <로미오와 줄리엣>의 매력은 현란하면서도 고색창연한 색채감과 생동감 넘치는 리듬의 향연에 있다. 누구보다 이 매력을 먼저 간파한 것은 작곡가 본인으로, 본격적인 발레 공연에 앞서 내놓은 관현악 모음곡들이 먼저 화제를 낳았다. 오늘은 지휘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열 개의 작품들이 연주된다.

I. The Montagues and Capulets(몬터규가와 캐플릿가) : 먼저 폭력이 난무하는 두 가문 간의 무서운 분위기를 암시하는 불협화음이 크게 울려 퍼진 뒤, 장중하면서도 비극적인 분위기의 행진곡이 연주된다.

II. Juliet – The Little Girl(소녀 줄리엣) : 민첩한 리듬과 장난스러운 분위기가 어린 줄리엣의 기분과 호기심 많은 소녀의 심정을 암시해 준다.

III. Masks(가면무도회) : 극 중 로미오, 머큐시오, 벤볼리오가 가면을 쓰고 캐플릿가의 무도회장 들어가는 장면을 그린 곡이다. 프로코피예프 특유의 전형적인 스케르초 풍이 잘 드러난다.

IV. Romeo and Juliet(로미오와 줄리엣) : 두 연인의 발코니 장면에서 쓰이는 유명한 서정적 곡으로, 작은 동기들을 교묘하게 발전시켜 장중한 클라이맥스에 이르게 하는 기법이 멋지게 펼쳐진다.

V. The Death of Tybalt(티볼트의 죽음) : 머큐시오와 티볼트의 결투 끝에 티볼트가 죽임을 당하는 장면으로 작곡가는 단순히 빠르고 긴박한 리듬 뿐 아니라 불규칙한 박자와 다면적 멜로디의 나열을 통해 치열한 결투와 비극적 결말을 그린다.

VI. Friar Laurence(로렌스 수도사) : 두 연인의 편이 되어 결함을 도와주는 로렌스 수도사를 묘사한 곡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멜로디가 연주되며 경건함을 유도한다.

VII. Dance(춤) : 무도회에서 다섯 쌍의 남녀가 춤을 추는 장면으로, 매우 극적인 발레의 분위기와 상반되는, 의식적인 무심함을 만들어내는 기계적 움직임이 인상적이다.

VIII. Dance of the Maids from the Antilles(백합을 든 소녀들의 춤) : 패리스와 줄리엣의 결혼식 날 백합을 들고 오는 소녀들의 춤 장면이다. 축하의 장면이지만 장례 행렬처럼 무겁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지배적이다.

IX. Romeo at Juliet's Grave(줄리엣 무덤 앞의 로미오) : 줄리엣이 사망했다고 믿고 절망하는 로미오의 심정이 무겁고 극적인 현악기의 절규로 표현된다. 중간부에는 한때 행복했던 시간을 회상하는 사랑의 주제가 잠시 나타나며, 결국 로미오가 독을 마시고 죽음에 이르는 장면까지 이어져 악상은 어둡게 가라앉는다.

X. The Death of Juliet(줄리엣의 죽음) : 줄리엣이 잠에서 깨어나 로미오의 시신 앞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장면으로, 단편적으로 끊어지기를 반복하는 멜로디들은 결국 미완성으로 끝난 비극적 사랑을 설명하며, 마지막에는 오케스트라 전체가 힘이 소진된 채 사라지듯 연주를 마무리한다.

글 | 김주영(피아니스트, 음악 칼럼니스트)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YouTube KBS교향악단



지휘
피에타리 잉키넨

Conductor
Pietari Inkinen

피아노
보리스 길트버그

Piano
Boris Giltburg

음악의 결정체

QUINTESSENCE OF MUSIC

시벨리우스 / 포올라의 딸, 작품 49
J. Sibelius / Pohjola's Daughter, Op. 49

프로코피예프 / 피아노 협주곡 제2번 g단조, 작품 16
S. Prokofiev / Piano Concerto No. 2 in g minor, Op. 16

시벨리우스 / 교향곡 제6번 d단조, 작품 104
J. Sibelius / Symphony No. 6 in d minor, Op. 104

시벨리우스 / 교향곡 제7번 C장조, 작품 105
J. Sibelius / Symphony No. 7 in C Major, Op. 105



2026. 9. 10. THU 20:00

롯데콘서트홀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1956년 창단된 KBS교향악단은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발전을 이끌어온 국가대표 오케스트라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피에타리 잉키넨 등 세계 정상급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어왔으며, 2012년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2026년 창단 70주년을 맞은 KBS교향악단은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통해 한국 교향악의 미래를 선도하며 세계 속의 오케스트라로 도약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제10대 음악감독으로 선임된 정명훈 지휘자가 있으며, 그는 오케스트라의 예술적 정체성과 중장기 비전을 이끌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매년 100회 이상 공연을 펼치며 10만 명이 넘는 관객과 만나고 있다. 정기연주회와 기획·초청 공연뿐 아니라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클래식의 저변을 넓혀왔다. 방송교향악단으로서 KBS TV·라디오를 통해 연주를 전국에 중계하며, 지역 음악제와 사회공헌 연주로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 위기 극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임산부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며 클래식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글로벌 오케스트라

KBS교향악단은 창단 이후 꾸준한 해외 활동을 이어오며 국제적 위상을 쌓아왔다. 그 과정에서 도이치 그라모폰 (DG) 실황 음반 발매를 비롯해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 등을 선보이며 세계 무대와의 교류를 더욱 확장했다. 2023년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서 공식 평가 5점 만점을 기록했고, 2024년에는 폴란드 쇼팽 협회와 체코 브르노 슈필베르크 페스티벌에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초청받으며 국제적 존재감을 높였다. 2025년에는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동 연주회를 열어 문화 외교의 상징적인 무대를 완성했다. 이러한 국제 교류는 KBS교향악단이 국가대표 오케스트라를 넘어 K-클래식 세계화의 선도자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K-클래식 콘텐츠 허브

KBS교향악단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클래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COVID-19 팬데믹 시기, KBS 전 채널을 통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의 실시간 관람을 기록했으며, 온라인 클래식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개관해 고품격 콘텐츠를 제공했다. 특히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은 아시아 클래식 계열 최초로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하며 클래식 대중화를 이끄는 대표 채널로 성장했다. 창단 70주년을 맞은 2026년, KBS교향악단은 정명훈 제10대 음악감독과 함께 시대와 세대를 잇는 음악으로 ‘클래식이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며 세계 속에서 울려 퍼지는 클래식의 중심으로 나아갈 것이다.

사장	이승환		
음악감독	정명훈		
단원			
제1바이올린	최병호 부악장 반선경 수석 유신혜 부수석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운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신지현 이수연	플루트	김태경 부수석 이철호 전서영
제2바이올린	권민지 수석 임정연 부수석 안지현 부수석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박서현 최여은 김시연 표정아 소재희	오보에	이지민 수석 김종아 부수석 조성호
비올라	진덕 수석 한넬리 부수석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정지수	클라리넷	이하늘 부수석 박한 양수현
첼로	김우진 수석 윤여훈 부수석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바순	박준태 수석 고주환 부수석 김소연 정순민
더블베이스	이창형 수석 김남균 부수석 안수현 부수석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곽민재	호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장수정
		트럼펫	남관모 수석 김주원 부수석 정용균 김승헌
		트롬본	김상우 부수석 윤지연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수석
		타악기	Jason Yoder 수석 장세나 Matthew Ernster
		하프	김서원

객원수석

악장	문바레니 (WDR 필른 방송 교향악단 제2바이올린 수석)	호른	고영종 수석
플루트	Vincent Lucas 수석	트롬본	Alexandre Faure 수석
클라리넷	Matteo Mastromarino 수석		

사무국

사무국장	홍석우
공연기획팀	팀장 손유리 차장 김지민 과장 성채은 전현정 대리 최난희 사원 허효정 인턴 손지수
공연지원파트	[악기담당] 유재식, 정오준, 김경오 [악보담당] 과장 장동인
공연사업팀	팀장 이한신 책임 손대승 차장 김원재 유연철 과장 이미라 PD 서영재 사원 장태형 신재영
경영관리팀	팀장 강길호 차장 유정의 박연선 사원 윤자윤 정태훈

KBS교향악단 후원회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넓게 나누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 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채로운 행사 참여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정가	기간	등급별 혜택
Symphony	1억원 이상	10년	-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단체 위한)
Concerto	3천만원 이상	5년	- VVIP 만찬
Cantata	1천만원 이상	2년	- VIP 만찬 -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Nocturne	5백만원 이상	1년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환담 및 다과) - 후원의 밤 행사 초청 -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Prelude	1백만원 이상	1년	- 연주 Lecture 초청 - 특별연주회 초청 (후원인을 위한 특별연주회) - 교향악단 투어 (KBS연습실 리허설 참관/연 1회)
Etude	1십만원 이상	1년	- 하단의 공통혜택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 (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 (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리허설 참관 초청 (Etude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명단 게재 (Etude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 ('kbssoforever')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후원회 가입 문의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Tel. 02-6099-7413
yyc@kbssymphony.org



KBS교향악단 이사회

이사장	이건수 (주)동아일렉콤 회장
감사	남유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상임이사	이승환 KBS교향악단 사장

이사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유진 KBS 시청자센터장
	이황선 KBS 예능센터장
	하종란 KBS 라디오센터장

후원회 명단

Symphony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Concerto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이영애 배우
이학노 슈퍼월드교역(주) 회장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명예회장
NH-Amundi 자산운용

Cantata 김영기 변호사
김원희
매크로통상(주)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설명수 석교실업 회장

Nocturne 이재록 (주)석교디앤디 대표
한문규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NH투자증권
(주)유카스 정광훈 대표

Prelude 권정숙
김연주 BCS ASSET CONSULTING 세무사
김희진 포크가수, DJ
박병원
박옥균 하나은행 런던자금센터
박지현 KBS 아나운서
박향미
배홍기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서성희 삼성생명 명인
유순신 (주)유엔파트너즈 대표
윤도식 법무법인 해자현 대표 변호사
윤혜원 전)KBS교향악단 오보에 단원
이규혜 한양대학교 교수
이명숙 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이유민
장희용 변호사
전희재 노무사
조명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연구교수
최기수 최앤이치과 원장
최정아
(주)코스모스악기
하나은행

2026년 협찬 기업

비씨카드(주) (주)코리아타임스 (주)우리카드 이희건 한일교류재단 (주)서울경제신문	1억원 이상
(주)신한은행	3천만원 이상
엘앤티렉서스(주) 셀리코리아컴퍼니(유) 대한소방공제회 (주)소다(현물협찬)	1천만원 이상

(주)광주은행	5백만원 이상
일동후디스(주) 유한김벌리(주) (주)메이블 (주)닥터맘	임산부음악회 물품후원

Life ON Sealy

오늘의 당신을 지지합니다



선피침대 구매문의 : 1670-2152



KBS SYMPHONY ORCHESTRA
70TH ANNIVERSARY